



「고분자 과학과 기술」지에 대한 회고

김 병 철

한양대학교 섬유공학과

지난 4월 6일, 7일 양일간 일산의 킨텍스에서 개최된 한국고분자학회 30주년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잊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기존의 춘계학회 경험에 비추어 1,500여부를 찍은 학술회의 프로시딩이 동이나 7일 오전 현장등록부터는 이 프로시딩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향후 다시 인쇄하여 우송해 주기로 하였고 등록에 필요한 영수증이 모자라 등록대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타 학회에서는 질투를 느꼈을 만큼의 행복한 비명이었으며 학술위원장인 본인에게는 참을 수 없는 희열이었다. 아마 몇 몇 혹자는 우리 집행부의 준비상대가 부족했다고 이 사실을 폄하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고분자 학회의 예측이 불가능한 정도의 빠른 발전 속도에 대한 반증이다. 본인이 수년전 한국섬유공학회의 총무로 있을 때 학회발전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하여 여러 학회의 발전상에 대한 요인들을 고찰해 본 적이 있다. 그 결과 국내 모든 학회 중 고분자학회의 발전상이 단연 돋보였고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 본 결과 지도부의 패기, 다양한 전공자에 대한 열린 정책, 활성화된 조직 및 구성원 등이 중요한 요인들로 포착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요인은 고분자학회에 대한 산업체의 애정인 것으로 인지되었다. 어느 학회나 학회는 그 특성상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소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학회가 여가에만 머물고 산업체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그 학회의 발전은 곧바로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고분자학회의 경우 이러한 산업체의 관심과 애정을 끌어들이는데 「고분자 과학과 기술」지는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고분자학회가 설립된 초기에는 대부분 연구논문 위주의 학술지인 폴리머지만 발간되었다. 이후 폴리머지의 권두에 고분자산업의 첨단기술이나 관심분야에 관련된 단편적인 총설 또는 기술논문들이 한두 편씩 실리기 시작하였으며 「고분자 과학과 기술」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단행본으로 편집되어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은 1990년의 일이었다. 처음에는 여러 분야의 기술을 동시에 다루는 옴니버스 형태의 기술지로 시작되었고 홍보가 미비하여 집필진의 부족으로 발간 첫해 편집위원이었던 필자는 기술뉴스, 용어해설 등 4가지 분야의 글을 투고하기도 하였다. 이후 다양한 집필진들의 풀이 형성되고 기술지의 체계가 잡히면서 기술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전문 테마지로 바뀌었으며 기술 전문지로서 오늘에 이르렀다. 누구나 동의하듯이 「고분자 과학과 기술」지의 수준은 세계 어느 곳에 내어 놓아도 빛을 발할 정도이다. 이러한 우수한 집필자들의 덕택에 이 기술지의 중요성은 기업에서도 인상적으로 각인되어 고분자 학회가 이론만을 중시하는 교수나 연구원들의 전유물이란 이미지를 바꾸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고분자학회가 기업의 관심을 끄는 효과 노릇을 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기술지에 정성껏 원고를 써주신 모든 집필자님들과 향후 우수한 원고를 써 주실 집필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다 - 당신들의 지고한 정성이 오늘의 발전된 고분자학회를 만든 숨은 원동력입니다.



아시아 넘어 세계로

하 창 식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학회가 설립된지 30년이 되었다.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대규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축제분위기가 느껴진다. 30년이란 세월은 짧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근대 과학사를 생각해보면 30년의 세월은 결코 긴 세월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회의 발전사를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1980년대 초, KAIST 박사과정에 진학하면서 김성철 교수님의 지도와 조의환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고분자란 용어를 처음 접하였고, 부산대학교에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고분자관련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다. 발표논문 900여 편, 참석자 수 1,200여명에 이르는 오늘날의 봄, 가을 연구논문발표회를 보면서 과연 오늘날의 우리 대학원생들은 1980년대 초 당시, 연구논문발표회 논문수가 20여 편도 되지 않던 시절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발표논문 수뿐만 아니다. 폴리머지는 물론이고, *Korea Polymer Journal*로 시작된 영문지 *Macromolecular Research*의 SCI 등재 등 학술지의 발전도 괄목할 만하다. 지난 30년간, 많은 회원들의 노력으로 세계의 변방에 있던 우리나라 고분자과학의 학문적 수준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수준으로 거듭나고 있다. 회원들의 학문적 수준이나 학회활동의 국제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난 30년간의 우리학회의 발전역사는 당연히 우리 모두가 자축해야 마땅할 것이다. 1970년대 중순 우리 학회를 창립한 선배님들의 노고에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회를 운영하면서 앞장서서 학회를 이끌어 온 임원들은 물론이고, 학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회원 모두가, 한국고분자학회 30년의 주역이라. 하지만, 오늘의 경사는 지나간 과거의 눈부신 발전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30년을 기약하는 계기로 삼을때 그 의미가 더욱 빛난다고 할 것이다.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말들을 많이 한다. 물론 문화예술계에서 주로 하는 말이지만, 과학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한국고분자학회의 발전은 가장 우리 것을 통하여 가장 세계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더구나 과학기술계의 무한경쟁은 두려울 정도이다. 회원 각자들의 개인적 과학기술수준 격차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속한 우리 학회와 세계의 학회들 간의 수준 격차가 그만큼 줄어들었을까 자문해보면 반드시 '그렇다'라고 고만은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동안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을 흉내 내며 국제학술회의도 수차례 개최하고, 영문지도 발간하는 등 국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조금은 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장 우리 것이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 나 자신도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 학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엔 세계의 중심학회로 성장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학회 회원들의 잠재력을 보면 충분하다. *Macromolecular Research*를 통해서나, 학회 활동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세계 제 1의 한국고분자학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회원 각자가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학회창립 50주년을 축하하는 글을 쓸 때쯤엔 이미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선 한국고분자학회가 되어있기를 희망해본다.